

특별기고 불교계 출판계 현실을 바라보고 대안을 모색한다

한 문장과 교감

a. 마음을 바꾸라.
b.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들은 그 문제들이 발생한 때 갖고 있는 사고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한 글쓰기 강좌에서 강사는 문장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다. a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흔히 쓰는 말이다. 특히 불자라면 흠어진 휴지조각처럼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말이다. 마음을 바꾸라, 모든 것이 마음먹기 달렸다, 네 마음을 보라. 곧 불교의 핵심인 일체유심조의 다른 버전들이다. 그런데, 끈이곧대로 마음을 바꾸라는 말은 실상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마음을 바꿔야 할 때 거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반면, b의 경우는, 문장이 무언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다시 한번 눈을 부비고 생각을 가다듬게 만든다. 적어도 이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정신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는, '아하, 그래. 기존의 나의 사고방식이 아닌 다른 관점, 다른 사고방식이 필요하겠구나.' 곧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얻어낼 수 있게 된다.

불교의 섬세한 가르침에 매료되어 불자들이 손대기 어려운 <대승기신론>을 읽고, 위빠사나 수행자의 마음수행 과정에 참여했으며, 매일 아침저녁으로 30~40분간 명상을 한다고 한다.

불교는 현대사회의 대안이다

불교 출판 스스로 답을 찾아야

능성과 전망을 포착하게 된다. 본질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견지하는 불교는 지나친 물질 추구 속에서 토대를 잃고 자신을 스스로 소외시키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앞으로의 세계를 담보할 수 있는 커다란 비전인 것이다. 하지만 그를 위해서는 불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발견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글쓰기 강좌와 같은 좋은 불교의 저변확대라는 의미와 더불어 불교가 나아가 할 길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 할 것이다. 이러한

좋은 불교 출판의 차원에서 보면, 고급 독자이면서 곧 불교 출판의 층위를 높여줄 수 있는 고급 필자인 것이다. 출판현상이 일어나려면 최소한 원고를 쓰는 저자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책으로 만드는 출판사가 있어야 하며, 출간된 책을 읽어줄 독자가 있어야 한다. 그 하나하나에서 만약 불교출판계의 문제점을 든다면 저자 문제는 불교학계나 승가의 교육 과정 등까지 확대되어 끝을 모르게 되고, 독자의 문제라면 불자들의 수준이나 불교신앙의 형태 문제까지 이르게 되어 역시 출판을 놓치게 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불교계 출판계 스스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것이 일차적인 것이다.

2008년 4월 1일 음식값 올린다 보니/생면, 만두국 한 그릇과/시집 한 권 값이 동일하게 되었다/한 끼의 배부름을 위한 것과/마음이 허전할 때 허기를 채우거나/살증나도록 우려먹는/시집 값이 같다는 것은/참으로 모순이다./나는 억울한 심정으로 독백을 쏟아낸다/시집 값 칠천 원/종이값이 백과/나의 시는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이라고...

유승배 시인의 '시의 값'이라는 시 전문



불교 출판의 문제는 출판계 스스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은 불교전문서점의 매장 모습. (현대불교지로서진)

편집자가 먼저 책의 가치 높여야 독자에게 감동주는 문장 포착 중요

이다. 요즘 웬만한 책값은 만 원을 상회한다. 심지어 사오만 원을 육박하기도 한다. 독자로 하여금 주머니에서 이삼만 원의 돈을 꺼내도록 한다는 것은, 이삼만 원이면 도록 우려먹는/시집 값이 같다는 것은/참으로 모순이다./나는 억울한 심정으로 독백을 쏟아낸다/시집 값 칠천 원/종이값이 백과/나의 시는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저 종이값만 받는 것이고 나의 시

는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한다. 시가 실제적으로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는 없으나 영혼의 갈증을 적셔주고 감성의 풍요를 가져다줄 수 있는 것은 틀림없다. 문제는 시를 읽는 독자가, 그 책으로 손을 뻗는 독자가 그렇게 판단하도록 책이 스스로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책을 다루는 편집자가 먼저, 먹고 읽는 데 쓰는 돈 이삼십만 원은 아끼지 않아 주머니를 몇 번이고 들락거리는 사람들의 부박함을 탓하지 말고 독자로 하여금 이삼만 원으로 일어백만 원의 가치를 얻었다는 기꺼움을 느끼도록 자신의 영역에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책 한 권을 산다 해도 진정 거시기 마음을 올리는 내용은 단 한두 줄일 경우가 많다. 포인트는 어쩌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독자의 심금을 울리는 한두 줄. 바로 그것이 저자가, 혹은 어느 간간한 편집자가 심혈을 기울여 다듬은 한두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외연을 따지기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눈앞에 있는 이 한 문장을 버리는 일. 그 작은 움직임이 더욱 소중하게 여겨진다.



오세연 대표(도서출판 나라연)

시민의 자발적 힘으로 강을 살린다

지을 스님·내셔널트러스트, 내성천 지키기 '시작'

지을 스님과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내성천 땅 한 평 사기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7월 28일 조계사 경내 전시장 '모래'에서 가졌다. 내성천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은 시민들이 모금과 기부를 통해 내성천 주변의 사유지를 확보해 생태적 공간으로 보존하는 활동이다. 지을 스님은 최근 주민 50여명과 함께 내성천 담사를 통해 트러스트 운동의 필요성과 내성천 보존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내성천은 국내에서 보기 드물게 모래톱이 발달해 주변 생태계가 풍요로운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4대강 개발 사업으로 영주담이 건설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담 건설로 상류로부터 모래 공급이 차단돼 생태계와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내성천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지을 스님.

내성천 트러스트는 올해 안으로 1만여명의 참가자를 모집해 사유지 1만 평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는 2015년까지 10만 명이 참여해 10만 평의 사유지 확보가 목표다. 내성천 트러스트측은 사유지가 확보되면 시민단체와 지자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해 생태습지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을 스님은 "내성천은 낙동강의 원형이다. 강의 땅을 강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로 이 운동을 시작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박기범 기자

가야산골프장 21년 만에 없던 일로

환경부, 골프장 폐지 결정 고시

해인사 수행환경 훼손 등 논란이 끊이지 않던 가야산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 계획이 21년 만에 폐지·고시됐다. 환경부는 7월 21일자 관보를 통해 골프장 신설 계획을 삭제한 가야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고시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치악산국립공원 내에서 추진하려던 골프장

건설계획도 폐기했다. 가야산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 계획은 1990년 건설부(現 국토해양부)가 수립했다. 1996년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 골프장은 불가능한 사업이었지만, 공원계획이 살아있다는 이유로 21년 동안 건설여부에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다. 조계종 환경위원회, 불교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밝고 향기롭게, 녹색연합, 국립

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등 종교·환경단체들은 29일 환경부의 결정을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이들 단체들은 논평에서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사업주의 행정심판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켜낸 환경부의 소신 있는 행보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가야산국립공원내 골프장 논란은 1991

년 골프장 사업 시행이 허가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해인사를 비롯한 불교계와 환경·사회단체들은 수행환경과 자연환경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운동을 벌였고, 1995년 정부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했다. 하지만 가야개발 측이 소송을 통해 사업을 강행했으나 대법원 판결에 의해 사업추진이 백지화되는 듯했다. 2009년 경북 성주군이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백운과 사업시행을 재추진했으나 환경단체 등의 반대운동이 다시 시작되자 주식회사 백운은 2011년 1월 골프장 사업을 취하한 바 있다. 조동섭 기자



“국가정보원 국가망신원으로 개명해라”

명진 스님 '민족21' 수사 비판

국가정보원이 <민족21>(발행인 명진)을 압수수색하고, 조선일보가 8월 3일자에서 <민족21> 관계자들이 북한 정찰총국 지령을 받아 활동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명진 스님이 강하게 비판했다. 명진 스님(사진)은 4일 만해NGO센터에

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언론탄압과 조선일보의 왜곡보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진 스님은 “<민족21>은 합법적 틀 안에서 활동·운영해 왔다”며 “이명박 정부가 울가미를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족21>에 지령을 내린 주체가 225국에서 정찰총국으로 바뀌어 보도되는데 대해서

도 스님은 “국가정보원은 국가망신원으로 개명하는 게 낫겠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명진 스님은 “북의 지령을 받았다면 즉각 폐간하고 발행인인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정을 비판해 온 본인에 대한 보복적 수사거나 공안당국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국정원은 즉각 폐원하고 원세훈 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스님은 “사실 확인도 않은 조선일보 보도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말했다. 조동섭 기자

배부른 돼지나라, 천(賤)한 나라, 낫빠진 나라, 불쌍하고 불행한 대한민국! 무료로 보내드리는 이 책을 읽을 단 하루의 시간이라도 있었으면...

세계일등 도덕 강국과 세계일등 경제 강국을 실현하는 국민상 정립(國民像 定立) 중심이 없는 국민사회가 학교교육에서 비롯되었음을 아는 이는 몇이나 될까?

우리의 국민두뇌가 <최고>의 자리로 인정 (책자 1장 65면) 받고 있는 현실과 우리의 인성적 특장(人性的 特長)이 <최고도>의 업무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과학적 정밀실험의 결과와 증거행동들이 구체적으로 검증 (책자1장 57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부(天賦)의 자질은 <일등나라의 창조>를 가능케 할 유력한 척도가 되며 '일등나라의 모습이 곧 우리다움'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인식을 촉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는 '최고'가 '최고'가 아닌 현실을 보게 됩니다.

가령, 일인당 국민소득(GNP)이 OECD국가(33개국)의 평균치(3만달러)에도 못미쳐 십수년째 2만달러의 경계를 오락가락하며 타고난 '최고'의 잠재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한지는 이미 20년에 가까운데(한계에 봉착) 아직도 그 문턱 밑을 맴돌며 그 기나긴 세월간에 몇푼이나 건진다고 무슨 큰 대화만 있으면 눈이 벌개 유지하느라고 장 세월을 국력을 쏟아 부어 왔던 합리화된 모리정치논리에 국민의 뉘를 팔아 왔으며 실속없는 국민들은 배부른 돼지들이 되어 태평성대를 노래하고 있으니 이것도 '최고'의 모습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고'를 방해하는 우리의 국민품성은 어떻게 생겼을까? '바로 살면 손해'라는 여리(地理)에 익숙해진 국민들, 드러나지 않는 비리(非禮)가 지배하는 사회, 부패한 국민상(OECD 국가 중 반부패지수 최하위)이 나라의 일등 국격을, 일등 희망을, 일등의 최선을 결코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에게 주어진 천부의 잠재력, 최고의 두뇌력과 최고의 인성력(人性力)을 최대(완벽) 적용하는 학교교육(공교육)실천에 의해 <

자율도덕력을 완성>하여 <창의 학습력의 최상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책자에서 자세히 밝힘 - 특히 27면 ~ 36면의 교실교육 실행에서 방도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음) 이와함께 최고의 교육을 위한 병행 조건으로서 국민상(國民像)을 교육하는 문제는 시급합니다.

국민의 정통가치관(국민상-한국사의 대동맥을 상징하고 국가의 최후가 될 기본가치관, 즉, 국민의 중심상(기초체도)을 정립함으로써 이나라의 오염된 온갖 선한 가치관들이 오용의 탈을 벗고 진정한 모습을 찾게 될 것이며 좌파, 우파 등 분단과 대립상을 창도해온 정치 주도의 가치관 유린시대를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책자에서 자세히 논함)

이제 세계경제, 과학문명을 제패하는 창의력과 일등 복지사회의 모범을 함께 일으키게 할 우리의 위대한 국민상(國民像)이 바로 우리 학생들 가슴속에 잠자고 있음을 깨우쳐야 할 필연의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고 믿어 소승은 신분의 틀을 넘어 자율도덕력의 완성과 창의 학습력의 완성을 통한 국민상 정립을 완성하는 공사(公事)에 투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사람의 문제이며 사람에겐 교육의 문제가 우선합니다. 사회는 교육의 소산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교육이 크게 아프지 않으면 국민이 장차 크게 이쁠것입니다. 일등민주를 요구하는 일등 국민두뇌의 불만은 깊어지고 중심(中心)없는 비도(非道)의 국심(國心)은 배신의 그늘에 안주하여 마침내 우리는 혼돈의 나라에서 대망(大望)의 확신을 잃은 국운을 분노와 후회의 시선으로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창의(創意)가 세계의 국민 정신문화와 세계의 경제, 과학 문명을 선도(先導) 할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다가 절망에 빠진 우국(憂國)의 교육지사(教育志士-교육에 뜻을 둔 각계의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 있다면 삼가 소승의 학교교육 현장 경험에서 얻은 치열

한 번으로 쓴 책자 '無門에 피는 꽃' (학교교육 혁명서는 세계 일등국을 실현하는 국민교육의 정도(正道)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드릴 것입니다.

강대국의 위협속에 국가의 미래를 우려하는, 학교교육에 뜻을 둔, 원하시는 국민 부처님들께 무상(무로 = 택배비 포함)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大韓沙門 慧岩 승掌

기도처 :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296-13(호봉골길 2번지) 정혜사

전화 : (031)536-1010, 휴대폰 : 010-4327-2134



• 제목 : 無門에 피는 꽃
• 저자 : 慧岩 (俗名 : 吉炳德)
• 규격 : 26cm x 19cm, 총 270면, 비매품
• 정규고등학교 교육을 기준으로 교실에서 시작되는 교육 혁명서입니다.

• 최고의 교육은 최고의 시설에 있지 않으며 그 생명력은 최고의 교육내용에 있습니다. 국민상 교육(國民像教育)의 토대위에 자율도덕력의 완성과 창의 학습력의 최상화를 실천하는 세계최고의 고등교육을 설립하십시오(교육지사(教育志士-교육에 뜻을 둔 각계의 사람들)를 구하는 광고입니다. 소승의 역할은 설립이후 (3년 이내에 최고의 교육성과를 거두는 책임)이 전부입니다. (책자 내용 참조)